

스마트 모빌리티, APEC 무대에 오르다 ... 첫 국제 포럼 개최

- APEC 회원경제 및 국내외 산·학·연 관계자 250명 참여, 4일 인천에서 개최
- 디지털 혁신·탄소중립·연결성 강화 등 교통 분야 정책 리더십 확보 의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「2025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」을 개최한다.

- 이번 포럼은 '25년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제안한 스마트 모빌리티* 이니셔티브의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, APEC 회원국,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및 지속가능한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(개념) 정보통신기술(ICT)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, 초고속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존의 교통수단·교통체계와 융합하여 사람과 물류의 이동 효율성, 안전성,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 교통서비스 및 시스템을 의미

- ‘Connecting Today, Innovating Tomorrow, Prospering Together’를 주제로,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, 도시화, 교통 불평등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합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 교통혁신, 탄소중립 교통체계, 국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

- 또한 이번 포럼은 오는 8월 6일부터 열리는 제55차 APEC 교통실무 그룹(TPTWG) 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.

□ 첫째 날(4일)에는 개회식, 고위급 세션 등을 진행한다.

- 개회식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“스마트 모빌리티는 경제 성장, 사회적 포용,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핵심 전략”임을 강조하며, “회원경제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원칙을 제안한다”고 밝히고,

- 이어 필리핀 교통부 차관의 축사 후에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‘자율주행 시대 :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.
 - 고위급 세션에서는 한국, 캐나다, 파푸아뉴기니, 러시아, 태국, 베트남 등 6개 회원국이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,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 이행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다.
- 둘째 날(5일)에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, 교통 분야 기술 혁신과 정책·기술·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.
- 첫 번째 세션은 ‘연결(Connect)’을 주제로 육상·해양·항공 교통 및 ITS(지능형교통시스템)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전략을 논의한다.
 - 두 번째 세션은 ‘혁신(Innovate)’을 주제로 진행되며, 인공지능(AI), 자율주행, 디지털 트윈 등 혁신기술의 최신 동향과 민관협력 사례가 공유된다.
 - 세 번째 세션은 ‘번영(Prosper)’을 주제로,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, 국제 표준화 추진, 지속가능성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.
- 포럼 기간 중에는 ▲국가 간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(MOU) 체결, ▲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, ▲APEC 전문가-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.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캐나다 온타리오 혁신센터(OCI)와 기술협력 및 공동 R&D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,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베트남 항공교육원과 항공 분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MOU를 맺을 예정이다.
 - 기술 전시에는 한국도로공사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 16개사가 참여하여,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, 자율주행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첨단 솔루션을 선보인다.

- 또한, 한국공항공사,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11개 기업·기관과 APEC 교통공무원 간 비즈미팅을 추진하여,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고,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.
-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“이번 포럼은 스마트 모빌리티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고, 회원경제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”라며,
 - “APEC 회원국 간 교통 효율성 향상,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격차 해소,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한 논의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,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	책임자	과 장	권유정 (044-201-4563)
		담당자	사무관	지현근 (044-201-3295)
			주무관	이지선 (044-201-3294)



□ 행사개요

- (배경) 우리나라가 ‘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 수립’을 제안(‘23.11)한 이후 성과도출 및 교통 분야 의제 주도를 위해 포럼 기획
- (일시) 8.4(월)~8.5(화) * SOM3(7.26~8.15) 기간 중
- (장소)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
- (참석) 21개 APEC 회원국 고위급 대표, 관련 기업 대표 등 250명
- (주요내용)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·정책 발표, 현장방문 등 교류 협력
- (프로그램) 개회식, 고위급 세션, 교통협력 MOU 등

□ 주요일정

구분	주요내용	세부내용
1일차 (8.4)	개회식 (14:00~14:50)	①개회사(차관님 5') → ②환영사(ITS협회장)→ ③축사(필리핀 차관) → ④기조연설(카카오 모빌리티 대표)
	양자면담 (15:00~15:30)	필리핀 ^{차관} 양자면담(30')
	고위급세션 (15:30~17:00)	회원국 국장급 발표(6개국) 및 논의
	환영 만찬 (17:00~19:00)	만찬사: 정책기획관
2일차 (8.5)	전체세션 및 폐회식	①세션1(스마트 모빌리티 구현 위한 역할) → ②세션2(모빌리티 혁신) → ③세션3(모빌리티 지속가능 번영) → ④폐회식
부대행사	▲기술시찰(인천 스마트시티 운영센터, 인천 국제공항), ▲기술전시회(16개 기관 등), ▲비즈미팅 ▲MOU 체결(인천국제공항공사 ↔ 베트남항공교육원, KAIA ↔ 캐나다온타리오혁신청)	

* APEC 산하 교통전문가그룹(TPTWG) 회의(8.6~8.8)와 연계하여 개최